

지역 소식통

권익현 부안군수, 봄철 화재예방 특별 지시

권익현 부안군수가 군민들의 인명 및 재산보호 등을 위해 봄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위도면 식도리와 출포면 등에서 잇따라 화재가 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군민들의 재산보호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전 부서에 각 분야별 봄철 화재예방 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특히 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120일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13개 읍면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봄철 화재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배치, 산불예방 홍보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산불진화차를 이용해 화재 발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순찰을 진행하고 산불진화장비를 상시 점검하는 등 화재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국가유공자 사회적 예우 조성 '앞장'

정읍시는 보훈 정신을 널리 홍보하고 계승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달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달리기 사업은 시와 국가보훈처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3일 무공수훈유공자(故)조정록 님의 배우자 김수향 씨와 공상군경유공자(故)한병근 님의 배우자 권순금 씨의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달아달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과 김영진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변용운 무공수훈자회 회장, 김관례 전물군경기림인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행정안내센터 24시간 운영

정읍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불편 해소... 주·야 신속 정보 제공 · 민원 상담

정읍시가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과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재택치료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시는 코로나19 치료 방식 개편으로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일반관리군'이 늘어남에 따라 분청 직원들로 구성된 상담반을 편성해 24시간 상담 가능한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행정안내센터는 주간·야간, 휴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운영된다. 1일 6명의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 외 맞고대 근무하면서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현재 선별진료소 운영과 재택치료 지원, 백신접종 이상 반응 확인 등의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전화

연결의 어려움이 많아 민원인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따라 행정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재택치료자의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시는 재택치료자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상담을 통한 민원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인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도 마쳤다.

행정안내센터 전화번호는 063-539-7995, 539-7996이다.

행정안내센터는 의료적 상담 외 재택치료자의 행정처리 상담과 행동 요령, 격리기간 해제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공동 격리자 생활 안내, 생활지원금 지원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 일반관리군의 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필요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군산의료원)에서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향후 민원 수요와 확진자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상담 인력을 추가 증원하는 등 행정안내센터 운영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택치료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지원방안과 행정안내센터, 신속현원검사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게시하는 등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지원조례' 시행

김연식 부안군의회 대표발의... 활성화 기대

부안군의회 김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2022년 1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근거가 마련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활성화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치유농업은 식물 기르기, 꽃 가꾸기 등 농업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며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이미 치유농업이 핵심 이슈



기본계획의 수립,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로써 부안군 치유농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

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조금은 생소한 분야지만 치유농업은 질병예방과 회복, 의료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농업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이라는 사회적 기여뿐만 아니라 농촌의 새로운 활력 및 소득 창출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부안군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연식 의원은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와 「부안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앞장서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코로나19 재택치료상담센터(행정·의료) 운영

전북 고창군이 지난 21일부터 정부의 방역체계 개편과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재택치료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택치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고창군보건소가 선별진료소와 신속현원 검사소, 백신 예방접종 등의 업무로 전화연결이 지연 되는 등 신속한 정보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상담센터를 설치해 코로

나19 확진에 따른 신속한 정보 제공과 재택치료자(공동격리자)의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군 재택치료추진단에 설치된 상담센터는 크게 행정센터와 상담센터로 구분된다. 행정센터에선 의료상담 이외의 일반민원, 재택치료 격리관리 등 생활수칙 안내, 재택치료기간 시작·해제일,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등을 안내한다.

의료상담센터는 비대면 진료기관과 이용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재택치료 상담센터 대표번호는 063-560-8580~8583이며, 주·야간 및 휴일 여부 관계없이 24시간 운영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선제적인 행정콜센터 운영으로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내용을 더욱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지난 23일 2022년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을 모두 마치고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수료식을 마쳤다.

도시재생 전문가 39명 배출

정읍시, 기본과정 수료... 주민 역량 강화

정읍시가 지난 23일 2022년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을 모두 마치고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수료식을 마쳤다.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은 도시재생과 마을민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주민참여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랩이다.

주민참여와 협치 속에 도시재생사업을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문제의 해결방안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료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공기업 제안형) 리본협의회 이재운 위원장을 비롯해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한 주민들과 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 도시재생대학은 전문가

의 강의와 실습 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도시재생의 해결 과제를 찾고 지역 활성화 아이디어를 내는 등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본과정 수료생들은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6강에 걸친 심화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도시재생 대학 운영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발전단계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우호적인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첫걸음이라며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리더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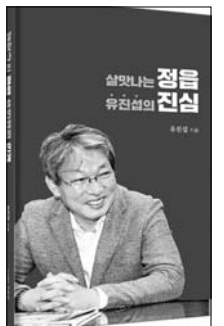
3월1일 유진섭 정읍시장 출판기념회

유진섭 정읍시장의 저서 '살맛나는 정읍, 유진섭의 진심' 출판기념회가 3월 1일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열린다.

유 시장의 저서에서 자신의 정치 인생과 지난 4년 정읍시장으로 일하며 느낀 소회 등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이 책에서 자신이 정치에 몸담으며 줄곧 지켜온 생각은 권력을 얻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일할 권한을 가지는 일이었다고 회상한다. 특히 유 시장은 정읍의 미래에 대해 늘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했다고 말한다.

유 시장은 책에서 정읍시의 '예산 1조 원 시대' 달성에 얽힌 노력과 뒷얘기도 전하고 있다. '예산은 기반이 있어도 쟁거주는 게 아니다'라며 예산 확보를 위해 무려 2억4,000여 km를 발



로 댄 노력의 결실이라고 쓰고 있다.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읍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

시로 5년 연속 선정된 것을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꼽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애환도 책에 담았다. 이런저런 오해와 음해에 시달린 일 같은 인간적 고뇌도 책 곳곳에 담겼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